

올해 제주경제 성장률 3%대 전망

한국은행, ‘2021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22년 여건’
변이 바이러스 추가 발생·물가와 금리 상승은 변수
2021년 관광 서비스업 회복세로 4% 안팎 상승 추정

올해 제주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관광 등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부진이 완화되며 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추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주력산업인 서비스업 회복세의 불확실성이 크고 오름세가 이어지는 소비자물가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5일 경제브리프 ‘2021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22년 여건 점검’을 내놓고 올해 제주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광 등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부진도 완화되며 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광서비스업은 해외여행 대체 수요로 내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세가 지속되고, 단체관광객도 코로나 상황 완화 정도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11월 1~12월 17일) 전후로 단체관광객이 전년동기 대비 44.6% 증가한 적이 있어 백신 추가접종과 경구용 치료제 보급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될 경우 패키지 여행, 수학여행, 기업 연수 등 단체관광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별관광객 수혜업종인 특급 호텔, 골프장, 렌터카는 지난해 큰 폭의 성장세에 따른 거저효과로 올해 증가세는 제한적이지만 단체·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회복되며 업종간 차별화도 완화될 것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기대했다.

올해 제주경제의 상방 리스크로 국제항공노선이 재개될 경우 관광객 조기 회복과 제주도가 제주형 뉴딜 2.0 관련 예산을 2021년 3867억원에서 올해 4718억원으로 22.0% 확대하고,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예산(20조4000억원)중 3조5000억원을 2023년까지 투자할 계획인 점을 꼽았다.

하방 리스크로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하며 10년만에 최고치를 보인 흐름이 지속되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6.7%(2020년 기준)로 전국수준(56.2%)을 크게 상회하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회복지원, 관광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주여건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제주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며 4%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역성장(-6.6%)에서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관광객 재개가 정상화되지 못한 대신 내국인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며 제주 방문 관광객이 1201만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액지수(1~9월)는 3.8% 증가해 전년의 감소세(-26.8%)에서 반전됐다. 숙박·음식점업의 신용카드 사용액(1~9월)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하고, 건축착공면적(1~11월)도 15.2% 증가하며 2017년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농림어업 지표는 악화됐다. 농산물 출하액(1~11월)이 4.5% 늘었지만 전년(13.2%)보다 증가폭이 둔화됐고, 수산물과 축산물 출하량은 각각 5.4%, 3.6% 감소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과일 맛보세요” 신세계백화점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제철 청정 제주 과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 과일 세트를 소개하는 모델들. 연합뉴스

집값 상승에 작년 주택연금 해지 ↑

9월까지 중도해지 12건으로 전년의 갑절... “신중히 결정해야”

제주지역의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주춤한 반면 중도 해지는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도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탓에 이전 가입자 중에 ‘혹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여기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에 취재한 결과 2021년 9월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353명으로 2020년 말(327명) 대비 26

명 증가했다. 도내 가입자 비중은 전국(8만8752명)의 0.4%다. 연금 도입 초기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인식이 강해 가입자가 미미했는데, 몇년 전부터는 늘어나 2017년 136명에서 2018년 190명, 2019년 257명, 2020년 327명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는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했다.

반면 연금 해지 건수는 증가해 9월까지 13건으로 나타났다. 1건은 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이고, 12건이 중도 해지다. 2019년과 2020년 같은기간 해지 건수가 각각 7건, 11건이었고 사망을 제외

한 중도해지가 각각 6건씩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중도해지 증가세를 알 수 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가구당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령층이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연금이다. 만 55세 이상 부부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중도해지한 주택의 경우 3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연금 출시 10년이 넘으면서 누적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에다 가입자의 노령화로 자녀 봉양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며 연금가입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중도해지시 가입자에게 유·불리 사항 등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작년 9월 기준 92만원으로 서울(143만원), 경기(112만원), 세종(103만원)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문미숙기자

가격 약세 제주산 월동무 해외로...

5월까지 6개국에 수출

출하철을 맞은 제주산 월동무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산 월동무 수출에 나섰다.

도경제통상진흥원은 4일 미국에 수출하는 월동무 선적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유럽 6개국에 1900t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월동무 수출은 지난해 8월 KJC AMERICA(대표 고정진), 프레스시(대표 임현진), 세화영농조합법인(대표 임현빈)이 농산물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미국에 1300t을

비롯해 네덜란드,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캐나다에 약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어치를 선적하게 된다.

올해 제주산 월동무 예상재배면적은 5467ha, 생산예상량은 37만여t으로 지난해 생산량(35만9575t)보다 많다.

월동무 재배면적은 농업통계 조사기관과 다른 조사방식으로 인한 오차 발생에 따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관측조사한 결과로, 당초 제주도의 자체 조사 면적(4770ha)보다 697ha 증가했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용량 : 20kg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코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균 발달을 촉진함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ㄷ(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옥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탱이 감글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영인 H·P 010-2633-5349